

‘청소년’ 용어 사용 시기 탐색과 청소년 담론 변화를 통해 본 청소년 규정방식

이혜숙(李惠淑)*

논문 요약

본 연구는 우리사회에서 '청소년' 용어가 언제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였는지를 탐색적으로 연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청소년 용어가 학계와 생활세계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후, 청소년에 대한 담론이 시대에 따라 변화되면서 청소년을 어떻게 규정하였는지에 대한 고찰도 함께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도서검색과 문헌조사를 주된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청춘소년', '소년', '청년'이란 용어가 사용되다가 청소년이란 용어가 사전에 실리게 된 것은 1940년에 발간된 『조선어사전』 에서이다. 『조선어사전』 에 청소년이란 용어가 실린 것을 볼 때, 1930년대에 이미 청소년이란 용어가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이란 용어가 왕성하게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50년대의 일로, 이 시기에는 청소년에 대한 맹아적 담론의 시기이기도 하다.

청소년 담론은 청소년 연구와 정책의 관심이 증대되던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하는 데, 본 연구에서는 그 변화를 세 흐름으로 대별하여 청소년 규정방식을 살펴보았다. '청소년=학생' 규정방식, '청소년=대중문화의 소비자' 규정방식, '청소년=대중문화의 생산과 소비의 주체' 규정방식이 그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용어의 등장과 담론의 변화에 따른 규정방식의 변화를 고찰해 봄으로써 청소년에 대한 개념 규정이나 범주가 사회문화적 맥락과 관련이 깊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 주요어 : 청소년, 청춘소년, 청년, 청소년 담론, 개념, 범주, 규정방식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원격교육연구소(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Institute Distance Education)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사회에서 청소년은 늘 보호와 선도의 대상으로 인식되어 왔다. 청소년은 성인과 달리 아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존재이며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나 선도에 의해 이끌어야 하는 존재로 여겨진 것이다. 그러나 20세기 말과 21세기 초에 와서는 선도의 대상이 아닌 한 주체로서 이해하고 수용하려는 접근들이 등장하고 있다.

청소년은 청소년이란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오늘날에는 신세대, X세대, N세대, 1318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기도 한다.¹⁾ 이름은 본디 자신이 자신을 자칭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불려져서 부과되고 만들어지는 것이다. 때문에 이름은 범주보다 앞서 존재하지 않는다(Lazarus, 1996: 223). 이름은 범주가 있고나서 그 범주를 부르기 위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청소년이란 이름은 청소년에 해당하는 범주를 지칭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한 사회에서 청소년이라는 범주가 어떻게 형성되고 청소년기가 어떤 조건 속에서 형성되었는지를 고찰하고 있는 선행연구들은 청소년이란 범주와 청소년기가 근대화의 산물이며, 최근에 형성된 문화적 현상이라고 보고 있다(조용환, 1993; 조한혜정, 1999; 최이숙, 2002; 김현성, 2004; 박연미, 2005). 서구에서 청소년의 범주가 형성되고 청소년기에 대한 구분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불과 몇 세기전의 일로, 근대화가 되기 이전까지는 지금의 청소년층에 해당하는 연령층은 있었지만 이들을 청소년으로 개념화하지 않았다. 굳이 아동이나 성인과 구분하여 청소년으로 개념화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오늘날의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연령층을 구분하는 개념이 등장하기 전에는 성인과 아동의 구분만이 있었다.

프랑스 문화학자 아리에스(P. Aries)의 견해에 의하면, 서구에서도 18세기까지는 청소년을 아동으로부터 구분하지 않고 혼용하여 사용하여서, 성인이 되기까지의 아동들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프랑스 단어인 앙팡(Enfant)으로 청소년을 불렀다. 케트(R. Kett) 또한 17-8 세기 미국에서는²⁾ 아동(child), 청소년(youth), 젊은이(young person)는 비슷한 말이었으며, 도시화, 공업화가 확산되기 시작한 19세기에 들어서 초등 의무교육이 마련되고, 이후 고등학교가 확산됨으로서 청소년기라는 구분이 가능해지게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권두승, 1998: pp. 14-17). 인류학자들도 여러 원시부족 사회의 연구를 통해, 부족 사회에서는 청소년이라 불리는 연령층과 개념이 없다고 주장한다.³⁾ 부족사회에는 아동기와 성인기, 그리고 아동과

1) 이런 용어에는 청소년이 기성세대와 차별적인 세대라는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의 내포와 함께 청소년을 새롭게 규정하고자 하는 욕구도 동시에 표현되어 있다.

2) 식민지 시대의 미국에서는 생애를 구분할 때 7세 미만의 유아와 그 이후 단계의 구별은 명확히 했지만, 7세 이후의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대한 하위 구분은 거의 하지 않았다고 한다(조용환·황순희역, 1992)

성인이라는 개념만이 존재한다. 많은 부족 사회의 경우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시점에 성인식⁴⁾이라는 통과의례를 거친다. 성인식은 아동기와 성인기라는 두 범주의 경계를 가시적이며 분명하게 보여주었다(조용환, 1993: 7). 많은 부족사회는 ‘사춘기=성인기’라는 등식 속에서 하나의 통합된 통과의례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사춘기와 성인기 사이에 존재하는 청소년기를 별도의 범주로 취급하지 않았다.

한 인구집단이 한 사회에서 하나의 집단으로 등장하기 위해서는 개념형성을 위한 제도적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서구에서 청소년은 근대이전부터 존재해 왔던 연령 집단을 규정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근대화의 과정에서 발견되거나 발명된 개념 범주 또는 세대인 것이다.

우리사회에도 청소년 범주는 조선시대나 그 이전 시대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최근에 만들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청소년이란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하였을 것이라 본다(조용환, 1993; 조한혜정, 1999). 그러나 청소년 용어가 언제부터 어떻게 사용되기 시작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추측은 있을 뿐 그동안 관심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주된 관심은 청소년의 비행, 일탈 등 청소년 문제와 청소년들의 문화에 있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청소년에 대한 연구도 청소년의 문제를 다룬 연구들(고성혜, 1995; 김준호·안호용·김선애·김선영, 2002)과 청소년의 문화를 다룬 연구들(민무숙, 1993; 강명구, 1993; 조용환, 1993; 김창남, 1994; 서동진, 2000; 배은주, 2004)이 주종을 이루었다. 최근에 이르러서는 청소년 담론에 관한 연구들(조한혜정, 1999; 최이숙, 2002; 김현성, 2004; 박연미, 2005)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런 연구들은 근본적인 질문인 ‘청소년 용어가 우리사회에서 언제부터 일상생활과 학계에서 사용되기 시작하였는가?’에 주목하지 않고 있다. 물론 조한혜정(1999)과 최이숙(2002)의 연구가 우리사회의 변화과정에서 청소년 개념이 어떻게 형성·분화되었는가를 따져서 ‘청소년’이라는 범주가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가를 살펴보고 있다. 그러나 이런 연구들은 ‘청소년’ 용어 사용의 구체적 시기에 대해 관심이 없을 뿐 아니라 청소년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이후에 청소년 개념의 분화과정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에 더 관심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 용어가 우리사회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시기를 탐색적으로 추적하여 연구하려고 한다. 또한 청소년이란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이후 청소년을 보는 시각과 담론의 변화과정에서 청소년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도 병행해서 고찰하려고 한다. 청소년 용어 사용 시기에 대한 탐색은 사용 시기의 개략적 추정이 가능할 뿐 구체적인 시기의

3) 사춘기 연구에서 뛰어난 작업을 했던 미드(M. Mead)는 사모아 사회에서의 연구를 통해 사모아 사회는 미국사회에서처럼 사춘기라 부르는 현상이 없음을 보여 주었다. 그녀는 미국사회의 10대들이 보이는 사춘기 청년들의 방황과 갈등은 근대화된 서구 사회에서 나타나는 특수한 현상임을 밝혀 낸 바 있다(조용환, 1993; 조한혜정, 1999).

4) 부족 사회들은 성인식이 있다. 동네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한 달 여 정도 생활하면서 그 부족의 역사나 성인으로서의 삶에 필요한 지식을 가르친다. 또한 성인이라는 징표를 나타내는 의식을 행하기도 한다.

과약은 언어의 생성·변화·소멸이 비교적 긴 시간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다소 어려운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용어 사용 시기를 탐색해 보고 그 후의 사용이 확대되는 과정에서의 변화 과정을 탐색하는 일은 청소년 담론과 청소년 문화를 이해하는 데 초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청소년 용어의 사용 및 청소년이란 용어가 등장하게 된 사회적 맥락에 관한 연구의 출발점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 본다.⁵⁾

II. 연구방법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우리사회에서 언제부터 청소년이란 용어가 학계나 생활세계에서 등장하여 사용되기 시작하였는가를 탐색적으로 추적해 보고, 1970년대 이후 청소년을 개념 규정하는 방식을 살펴보는 것이다.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청소년이란 용어가 일상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시기를 가늠해 본다는 것은 고고학자들이 현재 남아 있는 단서로 인간의 역사를 구성하는 일과 진배없는 일에 해당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란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시기를 최대한 접근 가능한 자료에서 청소년이란 용어가 언제 등장하는지를 추적하여 발견하려고 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1970년대 이후의 청소년 개념 규정 방식을 살펴보기 위해, 청소년 관련 도서와 논문을 중심으로 청소년을 어떻게 개념규정하고 있는지를 고찰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특히, 청소년 용어 사용시기의 탐색을 위해 본 연구는 도서검색 방법을 사용하였다. 청소년이란 주제어를 검색어로 하여 도서검색을 하거나 제목 검색을 통해 청소년이란 단어가 들어간 도서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 국회 도서관, 서울대 도서관의 도서 검색을 통해 그리고 한국언론재단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카인즈(Kinds, <http://www.kinds.or.kr>)에서 독립신문과 대한매일신보를 검색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해방 이전에 청소년이란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하였는지를 탐색해 보았다. 또한 새로운 어휘는 사전에 실린다는 점에 착안하여 『조선어사전』과 『국어사전』에서 청소년이란 어휘가 수록되어 있는가를 조사해 보았다. 1945년 이후의 자료는 출간된 잡지와 도서 목록을 검색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인민』 『백민』 『청년조선』 『인성』 『새교육』 등의 잡지에서 차례에 등재된 글의 제목을 찾아보면서 본문에서 청소년이란 단어가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5) 그러나 본 연구는 청소년 용어 사용 시기를 자료를 통해 추적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청소년 용어 사용 시기에 대한 탐색적 연구라는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이와 같이 도서검색과 도서관에서 잡지를 보면서 청소년이란 용어가 언제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였는가를 추적하였다. 그러므로 책에 실린 시점보다 청소년이란 말이 일상생활에서 더 먼저 통용되었을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Ⅲ. 청소년 용어의 사용 및 개념 형성

1. 청소년 유사어의 사용

근대화 과정에서 우리의 생활세계와 학계에서 청소년이란 용어 및 범주와 개념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인지 혹은 자생적으로 성인이나 아동과 구분할 필요에서 청소년이란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는지를 문헌자료의 검색으로 추적해 보면, 청소년과 유사한 용어들이 먼저 사용되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청소년과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는 용어를 보면 소년(소년), 청년, 젊은이, 학생, 어린이 등을 들 수 있다. 문헌들을 살펴보면, 청소년과 청년, 학생, 소년은 구분을 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따로 구분하지 않고 종종 혼용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활용에서 보면 이들에 대한 미묘한 차이가 존재한다. 이들 간에 구분의 명확성 여부와는 별개로 청소년이란 용어와 개념이 이전의 전통 한국사회에서는 사용되지 않다가 20세기 들어서 사용되기 시작한 개념 범주라는 것은 추측할 수 있다.⁶⁾ 과거 우리나라의 경우에 청년은 바로 성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에 따로 청소년이라는 시기적 구분을 두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개념적 구분도 없었다고 할 수 있다.

해방 이전에 청소년과 유사한 개념으로 쓰이던 개념으로는 청년, 소년(소년), 청춘소년이 있다. 청년은 그 의미에 있어 가장 청소년에 가깝게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청년이란 용어는 해방 이전부터 자주 사용되었던 것 같다. 청년이란 용어는 구한말에도 사용되었다는 것을 대한매일신보에 “청년동포에게경고함이라”(1907·8·24)라는 사설을 통해 알 수 있다. 또한 1910년의 대한매일신보의 “청년회강도”(1910·8·7)라는 잡보에서도 보인다. 그 이후의 신문에서는 청년이란 단어는 쉽게 찾을 수 있다. 1920년 동아일보의 기사에서도 청년이란 말이 사용되고 있다.

아 청년아, 제군의 사명은 과연 신성하고 제군의 이상은 과연 원대 하도다. 그러나 제군아, 제군

6) 조한혜정(1999)은 청소년은 청년과 소년의 합성어로 19세기쯤 일본에서 만들어졌을지 모른다고 추측하고 있다.

의 임무가 중대함과 과연 중대하면 중대할수록 제군의 전도는 험악하도다. ... (중략)... 청년아, 단결하는 방법이 무엇인고, 거룩할 지어다. 순결할 지어다. 욕심을 버리라. 공의를 품으라.....(동아일보, 1920·7·9)

청년이란 용어는 1920-30년대의 동아일보의 기사 속에서 자주 보인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시기에 청년은 아동이나 성인이 아닌 그 중간에 속하는 연령층을 의미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근대화되면서 전통적 한국사회에서 아동/성인이라는 개념이 세분화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사용되던 청년이 오늘날에 사용되는 청년이나 또는 청소년의 개념 범주와 유사할 것으로 보이나 동일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면 청소년이란 용어가 생활세계 혹은 학계에 등장한 것은 언제인가? 청소년이란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시점을 정확히 추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1920년에 나온 『조선어사전』을 살펴보면 청소년이란 단어가 등재되어 있지 않다. 1920년에 출판된 사전에는 ‘청년’과 ‘청춘소년’ ‘청년자제’란 단어가 실려 있으며, 아마 오늘날의 청소년과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조선어사전』(1920)에 보면, ‘청년’은 “나이가 젊은 사람”으로 정의되어 있다. ‘청년자제’는 “청춘소년과 같음”으로 되어 있으며, ‘청춘소년’은 “젊은 남자, 청년자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사전에 실린 개념으로 추측해 보건대, 이 시기에는 청년, 청춘소년, 청년자제란 단어가 아동도 아니고 성인도 아닌 젊은 사람을 의미하는 용어로 일반인들 사이에서 혼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 후에 청년자제란 단어는 소멸하고, 청년은 그 의미를 그대로 유지하여 생활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청춘소년은 청소년으로 변화된 것으로 보인다.⁷⁾

2. 청소년 용어의 등장

1940년에 출판된 『조선어사전』을 통해 청소년이란 단어가 비로소 사전에 등재되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청소년이란 단어가 실린 이 사전에서는 ‘청소년’을 “청년과 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시기의 사전에 청소년이란 단어가 등재되었다는 사실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청소년이란 용어가 일상사에서 통용되었다는 것이다. 새로운 용어가 생성되어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유통, 확산될 때 비로소 사전에 실리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청소년이란 용어와 개념은 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었던 용어라는 것을 충분히

7) 이런 추측을 구체화하려면 1930년대에 출판된 조선어사전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연구자는 1930년대에 간행된 조선어사전을 구하기 위해 여러 도서관을 검색해 보았지만 구할 수 없었다. 1930년대의 조선어사전을 구하기 어려운 것은 보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혹은 일본의 문화말살정책과 조선어 탄압정책으로 인해 조선어사전이 출판되지 못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집작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을 아동이나 성인과는 구분되는 연령층으로 보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1940년대 이전에 이미 청소년이란 용어가 등장하여 사람들 사이에 회자되어 사용되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보통 언어는 활자로 인쇄되어 표현되기 전에 사람들 사이에서 소통되기 때문에 청소년이란 어휘가 1940년 『조선어사전』에 등재되었다는 것은 최소한 45년 전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였다는 추측을 할 수 있다. 이는 1930년대에 청소년 용어가 일상세계에 등장하고 청소년 개념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그 시기가 정확히 192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지 또는 1930년대 초부터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1930년대에 청소년이란 용어가 사용되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또한 조선어 사전에 청소년이란 단어가 실리기까지 20년이란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⁸⁾ 그 기간 동안 어떻게 청소년과 관련된 개념들인 청년, 청춘소년, 소년이 변화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지금까지의 자료를 통해 청소년이란 용어가 등장하여 사용되기 시작한 경로에 대한 잠정적인 가설을 세울 수 있다. 우선, 하나의 가설은 청춘소년에서 '춘'자가 탈락되어 청소년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추측은 1910-20년대에 많이 사용되던 청춘소년이란 단어가 1940년대의 자료나 글 속에서는 찾아 볼 수 없다는 데서 비롯된다. 두 번째 가설은 청소년이 청년과 소년의 합성어(청년+소년)로 두 번 중복되는 '년'자를 생략하였다고 볼 수 있다. 1950년대의 『새교육』에 실려 있는 글들을 살펴보면, 청·소년이 청소년과 같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에서 추측할 수 있다. 세 번째 고려할 수 있는 가설은 청소년이란 용어와 개념이 우리 고유의 언어생활에서 생성된 단어가 아니라 일제 강점기 동안 일본의 언어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것이다. 일본에서 서구에서 이미 형성된 청소년 개념인 youth나 adolescence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청소년으로 번역하고 그것을 식민지배 하에 있던 우리가 독음으로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⁹⁾ 1920년대에 일본어로 출판된 책 제목¹⁰⁾에 청소년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에서 일본에서 사용되던 청소년이란 용어가 우리사회에서 사용되기 시작했을 가능성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조선어사전』에 청소년이란 단어가 등장한 이후에도 청소년이란 용어가 청년보다 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1979)의 『청소년 관계 문헌색인』에 수록된 1945년에서 1969년 사이의 단행본과 논문의 제목을 살펴보면, 1940년대는 청소년을 포괄하는 용어로 청년, 학생이란 개념이 많이 사용되었다. “청년은 국가 건설의 원동력이다”(1947),

8) 현재로서는 추정이다.

9) 이런 추측은 청소년이란 단어가 우리나라의 경우 1940년의 『조선어사전』에 실려 있고, 그 직후의 글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데서 비롯한다.

10) 1925년 출판된 『청소년훈련교정』이 그것이다.

“청년 조선의 재건”(1947), “애국 청년에게 호소함”(1947), “학생과 사상”(1948) 등의 논문이 그 예이다. 청소년이란 단어가 사용된 글은 이석당이 『인민』에 실은 “건국과 청소년 문제”(1946)에서이다.¹¹⁾ 이런 사실을 통해 보면, 1940년대에 청소년이란 용어가 사전에 등재되긴 했으나 실제에서의 사용은 청년에 열세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청소년 용어의 사용과 맹아적 담론의 형성

청소년 용어와 개념이 학계에서 상당 부분 수용되기 시작한 시기는 1950년대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50년대 초반의 문헌에는 청소년이란 용어가 쉽게 눈에 띄지 않는다.¹²⁾ 청소년이란 용어가 문헌에 등장하게 되는 것은 195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이다. 1955년에는 『카톨릭 청년』에 “청소년의 사도”(이세윤)가 실렸다.

이후 청소년이란 용어의 사용이 늘어나고 있음을 1948년 창간된 『새교육』을 통해 알 수 있다. 『새교육』을 보면 1950년대에 청소년 개념이 어떻게 다루어졌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 이전 시기까지는 청소년에 관한 담론이 형성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시기의 『새교육』에 실린 글들을 분석해 볼 때, 청소년에 관련된 여러 편의 글들을 찾을 수 있다. 1950년대는 청소년이 기성세대와 대비되는 젊은 집단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그런 과정에서 청소년에 관련된 담론이 맹아를 보이기 시작한 시기로 볼 수 있다.

우선, 김재준(1956)은 “청소년 범죄와 종교교육”에서 청소년의 범죄를 다루고 있다. 이미 이 시기부터 청소년을 범죄나 비행의 관점에서 논의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황용연(1956)도 “왜 부랑하게 되는가”에서 청소년 범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다음은 그의 글의 일부분이다.

우리는 신문지상에서 청소년의 범죄 행동이 대대적으로 보도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중략)...무슨 대책을 세워야겠냐. 전쟁의 피해 때문이다. 경제적 빈곤 때문이다. 가정교육이 나빠서 그렇다. 학교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성인 사회가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청소년이 물든 것이다.

이런 글을 통해 1950년대의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 범죄가 사회 문제가 되기 시작했으며, 이에 학계에서 청소년을 범죄나 비행의 각도에서 조망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시기부터 청소년을 교육적으로 선도하고자 하는 담론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11) 이 글은 청소년이란 용어가 국어사전 외에 실렸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12) 1950년에 6.25 전쟁이 발발했기 때문에 우리사회가 전시 상황으로 인하여 학계에서의 활동이 저조했기 때문인 것 같다.

다. 함석헌(1959)의 “청소년 학도를 무엇으로 고무할까”와 고무원(1959)의 “비행소년의 선도”는 그 예이다. 즉, 바람직한 방향으로 청소년을 이끌려는 글들이 『새교육』에서 많이 실려 있다.¹³⁾

1950년대의 청소년 용어는 오늘날의 청소년에 보다 가까운 범주로 사용되고 있다. 즉, 아동과 성인과 구분하기 위한 범주로 청소년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김동리(1959)는 “청소년의 읽을거리 문제”에서 청소년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어, 청소년의 개념범주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

청소년이라 함은 만화나 동화를 읽는 아동기를 벗어나서 성인이 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한계를 가린다면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에 해당될 것이다.

김동리의 글에서 보듯이, 1950년대 당시에 청소년은 아동과 성인의 중간 연령층을 지칭하는 용어라 할 수 있다. 즉, 청소년은 중고등학생에 해당하는 연령층과 대학생을 포괄하는 범주로 사용되었다.

IV. 청소년 담론 변화와 청소년 규정 방식

우리나라에서 청소년에 대한 담론은 그 시대에 따라 모습을 달리 하여왔다. 청소년이란 누구인가? 그들은 무엇을 하는가? 그들이 형성하는 문화, 청소년 문화는 어떤 특성을 갖는가? 또한 청소년은 어느 연령층에 속하는가?¹⁴⁾ 이런 질문을 중심으로 청소년의 담론이 형성되어 왔다. 이런 담론은 청소년을 어떻게 규정하고 범주화하고 다루는가에 따라 변화해왔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이란 용어와 개념이 생기기 전까지 청소년은 성인과 구분되는 존재나 아동과 구분되는 존재가 아니어서 그저 성인 또는 대인과 반대되는 소인 또는 미성년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용어나 범주 및 개념이 필요 없었다. 청소년 용어가 생활세계와 학계에서 폭넓게 사용되면서 비로소 청소년을 하나의 개념 범주로 인식하고 다

13) 이 시기의 청소년에 대한 사회의 인식 및 시각을 읽을 수 있다.

14) 법률을 통해 본 청소년의 연령 범위를 살펴보면, 청소년을 규정하는 주체 측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1961년 제정된 청소년 정책과 관련된 법령인 미성년자보호법과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을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고 하고 있다(조한혜정, 1999: 30). 1991년에 마련된 청소년기본법은 '9세에서 24세'를 청소년층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1997년의 청소년보호법에는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소년원법에서는 '12세 이상 20세 미만'을 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12세 이상 14세 미만을 형사미성년자로 본다(법무부, 1994). 문화관광부(1999)에서 나온 『청소년백서』에서도 청소년 인구를 '9-24세에 이르는 사람'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르면, 초등학교생부터 대학생까지 청소년의 범주에 들어가게 된다.

루기 시작하게 되었다. 그러나 청소년 용어가 일상에서 사용되던 1950년대에는 청소년을 둘러싼 담론이 충분히 형성되지는 않았다.

청소년이란 용어가 왕성하게 사용된 시기는 1960년대 이후라 할 수 있다. 1960년대 중반 이후에 청소년 용어가 많이 사용되었다는 것은 “청소년 정신교육을 위한 긴급동의”(박산석, 1964), “청소년과 종교교육”(지명관, 1966), “민족 정체성 형성을 위한 청소년 교육”(최사순, 1966) 등의 글을 통해서 가늠된다. 1960-70년대에 이르러 학계에서 ‘청소년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축으로 청소년담론이 형성되었으며, 이후 청소년 담론은 사회적 맥락 속에서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본 연구는 청소년 담론을 세 시기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청소년=학생' 규정방식

청소년이 젊은 세대를 지칭하는 용어로 빈번하게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정착되기 시작한 시점은 1970년대부터이다. 이 시기는 청소년을 ‘학생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학생 청소년만 청소년의 담론에 포섭하였던 시기로, 1970년대부터 1980년대 후반(또는 90년대 초)이다. 아직도 청소년 하면 13-18세의 중고등학생만을 지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청소년의 범주를 중고등학생이란 제한적인 범주로 묶어 놓은 시기가 바로 이 시기에 해당된다.

따라서 청소년을 규정하는 방식은 청소년을 특정세대 집단으로 규정하는 담론 속에서 중고등학생을 지칭하였다. 제도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를 중심으로 중고등학생에 해당하는 연령층을 청소년이라 일컬었기 때문에 청소년=학생이라는 등식이 성립된다(조용환, 1993). 이런 등식의 성립은 학생과 비학생이라는 이분법으로 청소년을 구분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청소년이 청소년=학생으로 규정되면서 청소년 범주와 개념은 분화가 이루어진다.

첫 번째 분화는 청소년을 학생으로 등치시킴으로써 학생 아닌 청소년을 별도의 범주로 구분하는 것이다. 즉, 학생에 속하지 못하는 청소년은 주변적인 범주인 근로 청소년에 속하게 된다. 이 시기의 근로 청소년은 학교에 갈 여건이 되지 못해 공장에 취업해서 자신의 삶을 꾸려 나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이었으며, 소외된 계층이었다. 이런 담론에서는 자연스럽게 학생이 아닌 비학생인 근로 청소년들에 대한 논의는 배제되고 소외된다(조한혜정, 1999: 강명구, 1993).¹⁵⁾ 즉, 청소년 담론에서 특정 집단을 선택하고 특정집단이 배제되는 시기라 할 수 있다.¹⁶⁾

15) 근로 청소년에 대한 관심은 대학생과 사회운동가들이 야학을 개설하여 그들의 향학열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정도였다.

16) 서구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노동 청소년이 배제되어 규정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웹디지(Hebdige, 1988)에 따르면, 산업화 과정에서 청소년을 어른과 다른 동질적인 세대로 규정하는 과정에서 노동 청소년

이렇게 학생을 청소년의 주 집단으로 규정하면서 청소년 노동자에 대한 관심은 크지 못했던 데 비해 학생 청소년에 대한 관심은 비교적 컸다. 그러나 학생 청소년에 대한 사회의 관심도 그들이 독자적인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배려하거나 격려하는 방향은 아니었다. 이 시기의 학생 청소년에 대한 담론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학생 청소년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고 그들의 문화를 인정하기보다는 그들을 통제하고 지도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으며, 학생 청소년에 대한 담론도 주로 비행 청소년, 불량 청소년이란 관점에서 형성되었다. 1970-80년대에 학교는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력의 대량생산에 기여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학교와 기성 사회질서에 순응하지 못하고 이탈하는 학생은 서슴없이 문제 학생, 불량 청소년, 비행 청소년으로 낙인찍혔다(박연미, 2005). 이 시대 사회의 청소년에 대한 시각은 학교에 부적응하는 학생을 이탈이나 비행과 관련지어 바라보았으며 그들을 청소년 범죄와 관련지었다. 이런 관점에서 연구들은 상당수가 청소년 문제, 청소년 범죄, 비행 청소년, 청소년과 이탈, 부적응 청소년 등을 다루었다.

두 번째의 분화는 청소년=학생 담론은 청소년을 학생 청소년으로 국한시킴으로써 학생에서 중고등학생만을 포함하고 대학생은 청소년의 범주에서 제외되기 시작하면서 일어나게 된다. 입시경쟁 속에 살아가는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청소년 담론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9-24세의 연령층에 포함되던 청소년층에서 대학생은 배제되었다. 따라서 청년 문화, 청년 운동에 대한 담론의 형성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청년 운동으로는 1960년대 말 1970년대의 히피문화와 통기타로 대변되는 청년 문화 운동을 들 수 있다.

1970년대의 청년문화 운동은 몇 가지 억압적 사회요인과 연관하여 설명될 수 있다. 정치적으로는 박정희 정권의 억압적인 권위주의 권력에 대한 젊은 층의 정치적 저항, 경제적으로는 경제 성장으로 인한 청년 시장의 등장, 문화적으로는 서구식 교육과 문화 속에서 성장한 세대의 일본식 문화 세대에 대한 거부감 등이 청년 문화를 배태한 사회적 요인들이다(김창남, 2000). 1970년대의 청년 문화는 통기타, 생맥주, 청바지, 장발 등의 서구식 스타일의 적용을 보이면서, 한편으로는 그것이 기성사회의 억압적 질서에서 벗어나는 상징적 저항의 통로였으나, 그런 연유로 기성의 권력에 의해 방종과 퇴폐로 낙인찍혔다. 1970년대의 청년에 대한 통제는 장발 단속, 미니스커트 길이 재기 등의 양상을 보이면서 청년을 단지 통제의 대상으로 다루었다.

또한 1980년대의 학생운동을 들 수 있다. 이 시기의 학생 운동은 대학생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는데, 기존의 질서와 정권에 대한 저항, 변혁을 요구하는 것으로 그 어느 시기보다 격렬한 학생운동이 전개되었다. 학생 운동에 대한 정부, 사회의 시각은 통제와 탄압으로 일관된

에 대해 이들의 독특한 스타일과 문화가 부각되면서 노동 청소년을 다른 방식으로 규정한다고 한다.

방식이었다. 1980년대 중반을 정점으로 학생운동은 기존 정권에 대한 저항의식을 분명히 보여 주었다. 그러나 1980년대 말 1990년대로 접어들면서 학생운동은 그 이념성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런 학생 운동의 쇠퇴는 1990년대의 소비 자본주의의 전개와 함께 청소년에서 대학생 배제시키면서, 대중문화의 소비자로서 청소년을 논의하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된다.

2. '청소년=대중문화의 소비자' 규정방식

1990년대 접어들면서 소비 자본주의 체제가 전개되면서 청소년에 대한 인식이 기존의 학생 청소년에서 소비의 대상으로 전환되기 시작하였다. 학생 중심의 청소년 세계를 급격히 바꾸기 시작한 것은 국가나 시민사회가 아닌 자본에 의해서였다(조한혜정, 1999: 32). 1990년대 들어서서 1980년대의 이념이 해체되면서 전망의 부재를 가져왔고 이런 와중에 정치와 권력의 힘은 약화되고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이 시장과 자본의 논리이다. 특히 신세대 청소년층이 문화시장의 중심에 놓이게 되면서 그들을 대상으로 한 자본의 논리에 따라 그들을 소비의 대상으로 전략시켜갔다. 또한 전지구화 담론과 더불어 정보화 세계의 등장은 이 시기의 청소년층을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영상 문화에 젖게 하였다.

이런 자본주의의 흐름과 맞물리면서 미디어 매체의 광고는 청소년층을 주력 대상으로 상품을 팔기 시작하였다. 광고를 통해 청소년에게 늘 구매하도록 촉구하였으며, 학교 밖의 공간도 이들에게 소비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노래방, 오락실, 호프집들을 찾아다니며 피시(PC)방에서 채팅에 열을 올리기도 하였다. 청소년은 학생이라는 정체성에서 벗어나 다양한 소비의 대상, 또는 즐거움으로서의 청소년으로 규정되었다. 즉, 청소년은 대중문화를 즐기고 소비하는 주체의 범주가 되었다.

'청소년=대중문화의 소비자' 담론의 형성은 청소년을 학교에 묶어둘 수 있었던 1970-80년대와 달리 더 이상 학교라는 울타리에 묶여 있는 존재로 보지 않게 되면서이다. 1990년대 상황은 입시위주의 교육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면서, 수출주도적인 경제성장기에 적합했던 입시위주의 교육이 점차 획일성과 비인간적인 면들로 비판받기 시작하였다(박연미, 2005). 또한 1990년대 말에 학교 붕괴, 교실 붕괴, 왕따 현상이 드러나게 되었다. 따라서 1990년대 이전의 학교가 파행적인 입시구조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을 학교라는 공간 속에 배치하였지만 1990년대 말의 학교는 더 이상 억압적인 학교 속에 학생들을 묶어 둘 수 없게 된 것이다. 청소년들은 학생 정체성에서 탈피하여 그 동안 자신을 옹아매던 학교의 틀에서 벗어나고자 한 것이다.

1990년대의 사회의 변화에 따라 학생 청소년이 아닌 대중문화 소비자로서의 청소년으로의

전환과 더불어 정부의 청소년 정책도 그들의 변화에 보조를 맞추는 방향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1987년 청소년을 육성하자는 취지에서 체육부에서 청소년육성법을 제정하였다. 1989년에는 청소년에 대한 연구를 위한 청소년 연구원이 설립되었다. 그러나 정부의 청소년 정책에 대한 노력은 그 결실을 맺기에 많은 부족한 점들이 있었다. 이 시기의 청소년 정책은 청소년들을 학생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하여 독자적인 청소년으로 자리 매김하려고 하였으나, 실제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청소년을 전인적 존재로 부각시키지 못한 점이 있다. 1991년 마련된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청소년 활동은 활성화되는데, 이 때 청소년 활동의 초점은 잠시 학교를 떠나 자연 속에서 수련활동을 하는 것에 주어졌다(조한혜정, 1999: 31-2). 이 시기의 청소년 담론이 수련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수련거리 개발에 대한 관심으로 고조된 것은 이 시기에 나온 청소년 연구 주제의 상당부분이 수련거리 개발에 있었다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¹⁷⁾

1990년대 말의 청소년은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 학교에서 소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것에서 벗어나고자 하기도 한다. 한편에서는 대중문화의 스타처럼 되고자 시도하는 청소년들이 점차로 늘어나고 있다. 백댄서로 활동하기 위해 열심히 춤을 추는 아이들, 랩이나 락에 빠져드는 아이들, 팬클럽을 결성해 그들과의 교류를 통해, 유명가수의 삶이 자신의 삶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아이들, 밤새도록 인터넷을 누비고 채팅도 하기도 하며, 낮에 학교에 와서는 자는 아이들, 머리를 색색으로 물들이는 아이들, 이들은 더 이상 학생 청소년이기를 거부하는 아이들이다.

따라서 1990년대의 청소년 담론은 청소년을 '신세대' 'N 세대' 'X세대'로 규정하면서 청소년을 대중문화, 미디어 문화를 소비하는 층으로 다루게 된 것이다.¹⁸⁾

3. '청소년=대중문화 생산·소비 주체' 규정방식

1990년 대 말에 서서히 청소년을 대중문화의 소비자로서만이 아니라 청소년 문화의 주체로 보려는 담론의 형성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청소년을 하나의 단일한 범주로 규정하기보다 다양한 범주로 그들을 규정하려는 노력이 등장하며, 청소년을 대중문화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주

17) 예를 들면 “청소년 전용 놀이마당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김정명 외, 1991), “청소년 수련거리 실태조사 및 개발방향 연구”(박명운 외, 1992), “청소년수련터전 실태조사와 소요실태 분석에 관한 연구”(도종수, 1992), “청소년 수련활동 참여시간 확보방안 연구”(한승희 외, 1992), “청소년 수련지구 및 전용 활동 운영에 관한 연구”(도종수 외, 1993)들이다.

18) 소비의 주체로 청소년을 규정하는 방식은 미디어 담론에 의해 주도되었다. 신세대는 1988년 한국일보의 연재기사 시리즈에서 비롯되어 민주화 이후 툭툭 튀는 소비세대를 규정하였으며(주은우, 1994), X세대라는 규정은 1994년 화장품 광고 '트윈 X' 광고에서 인용되면서 주로 사용되었다(최이숙, 2002).

체로 보려는 담론이다. 대표적으로 조한혜정(1999)은 국민이 단일한 범주가 아니라 다양한 범주이듯이 청소년도 단일한 존재가 아니라 학생이며, 시민이며, 문화 생산자이며, 소비자라고 보고 있다. 그에 따르면, 청소년을 단지 대중문화를 일방적으로 수용하고 소비하기만 하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청소년에게 대중문화는 그들의 중요한 삶의 공간이며 생생한 체험을 하는 공간이며, 청소년들은 이들 문화를 소비하면서 동시에 이들 문화를 스스로 주체적으로 형성하며 만들어 가는 생산자이기도 하다. 청소년들은 단순한 대중문화의 향유를 넘어 매체에 드러난 대중스타의 패션을 수용하면서 또래 집단으로서의 자신들만의 스타일과 유행을 형성하고 그들만의 정체성을 구성하게 된다(최이숙, 2002). 따라서 이들 청소년을 규정하는 방식은 대중문화의 소비 주체이면서 동시에 대중문화를 생산하는 주체로 변화되었다.

더 이상 청소년에 관한 담론은 뉴미디어와 매체에 의해 일방적으로 조종당해 그들의 상품을 소비하는 대상으로서의 청소년을 다루지 않는다. 오히려 청소년들은 학교 밖의 삶을 통해 '내가 누구인가'를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감으로써 자신들의 정체성을 형성하고자 한다고 본다.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을 각색하고 의미화 시키는 작업을 통해 이 사회의 시민으로서, 주체로서 서고자 노력하는 새로운 방식에 대해 주목하고, 나아가 끊임없이 그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삶과 문화를 성찰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자 하려고 한다(정유성, 1998; 서동진, 2000; 조한혜정, 1999; 배은주, 2004; 서덕희, 1999; 전은희, 2000).

청소년을 문화의 생산자이며 주체로 보는 담론들은 청소년을 수동적 대중문화의 수용자로 규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직접 제작을 경험하거나 작품을 만들고 생산하고, 심지어는 판매하는 대중문화의 생산과 유통의 주체로 규정한다. 특히, 배은주(2004)는 청소년 센터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이 작업을 통해 그들만의 문화를 만들어내며, 나아가 프로젝트를 통해 자신이 만든 명함이나 작품 등을 판매하기도 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런 담론에서는 청소년을 성인과 구분하기 위한 범주로 규정하기보다 청소년을 그 자체의 집단으로 보려는 인식과 연결시키려 한다. 즉, 청소년의 문화는 성인문화와의 동질성이라는 척도로 평가하고 판단하기 보다는 청소년들이 만들어 낸 삶과 문화, 개성이 들어있는 삶의 문화이다. 청소년을 대중문화의 생산과 소비의 주체로 보는 담론에서 청소년이란 범주로 묶이기 이전의 한 인간, 한 시민으로서 독립적인 주체로서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 존재로 규정하려 한다.

VI. 결론

지금까지 우리사회에서 청소년이란 용어와 개념 및 범주가 언제부터 사용되기 시작했으

며, 청소년이란 개념 범주가 등장한 이후부터 청소년에 관한 담론이 어떤 방식으로 변화했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 결과 청소년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40년 『조선어사전』에서라는 것을 잠정적으로 규명하였으며, 일상생활에서는 그 이전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였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이란 용어가 학계나 생활세계에 언제 등장했는지에 대해 탐색적으로 살펴보았을 뿐 정확하게 그 시점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란 단어가 이미 일제 때부터 사용되어 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사실은 우리나라도 서구 문화권과 마찬가지로 근대화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범주로서 청소년을 개념화할 필요가 생겨 청소년 용어가 사용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청소년 담론이 어떻게 변화해왔는가를 고찰해 봄으로써 청소년에 대한 규정방식의 변화가 사회문화적 맥락과 매우 관련이 깊다는 것을 규명하였다. 학교교육이 인력양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던 시기에는 청소년을 주로 학생으로 규정함으로써 노동 청소년을 근로 청소년으로 배제하였으며, 청년문화운동과 학생운동의 왕성하던 시기에 대학생이 청소년 범주에서 배제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대중소비사회의 도래로 청소년은 대중문화의 소비자로서 규정되고, 이후 청소년을 대중문화의 소비와 생산의 주체로 규정하게 되었다.

이런 연구 결과는 청소년 규정방식의 변화가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맥락의 변화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연구는 청소년을 규정하는 방식이 청소년 담론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을 보여 줌으로써, 청소년 이해 교육 또는 청소년 정책의 방향 설정에 청소년을 어떻게 규정하는가 하는 문제를 함께 고려할 것을 요청한다. 나아가 청소년을 문화의 소비자, 생산자로서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학습자로서 조명할 것을 요청한다. 즉, 학교안팎에서 학습의 주체로서 성장하는 존재로 청소년을 볼 것을 시사하고 있다.

참고문헌

- 강명구(1993). 압구정문화와 노동청소년 문화, 소비대중문화와 포스트모더니즘. 서울: 민음사.
- 고무원(1959). 비행소년의 선도. 새교육, 9월호.
- 김성혜(1995). 청소년 비행의 개념 규정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권두승·조아미(1998). 청소년 세계의 이해. 서울: 문음사.
- 김동리(1959). 청소년의 읽을거리 문제. 새교육, 10월호.
- 김재준(1956). 청소년 범죄와 종교교육. 새교육, 7월호.
- 김창남(1994). 하위문화집단의 대중문화 실천에 관한 일 연구: 대중음악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김준호·안호용·김선애·김선영(2002). 가족의 구조 기능과 청소년 비행. 한국청소년연구, 13(1). pp. 225-267.
- 김현성(2004). 집단 따돌림 담론을 통해 본 청소년 주체형성과정과 그 효과에 관한 연구. 교육사회학연구, 14(3). pp. 41-63.
- 김형곤(1991). 뮤직비디오 수용자들의 포스트모던 청소년 문화에 대한 현장기술지.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문세영(1940). 조선어사전. 경성:(발행자 미상).
- 문화관광부(1997-1999). 청소년 백서.
- 민무숙(1993). 고교생 또래 문화의 지역간 차이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13호
- 법무부(1994). 소년보호행정 편람.
- 박연미(2005). 청소년기의 개념화와 청소년의 성: 1990년대 이후 청소년 보호 정책을 둘러싼 논쟁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배은주(2004). 청소년센터에서의 대안적 학습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서덕희(1999). 매체경험의 교육적 의미: 두 청소년의 생애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서동진(2000). 청소년문화를 읽는 담론의 지형. 한국언론정보학회·문화개혁시민연대. 청소년 문화와 홈스쿨링. 공동학술발표회자료집.
- 석이경(1947). 청년은 국가의 원동력이다. 청년조선, 11월호.

- 설의식(1947). 청년 조선의 재건. 인성, 제3호.
- 유네스코한국위원회(1979). 청소년관계문헌색인(1945-1969). 청년연구, 제2집.
- 윤호상(1948). 학생과 사상. 백민, 제15호.
- 이상용(1998). 청소년들의 대중문화수용에 나타나는 성찰적 체험과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이석당(1946). 건국과 청소년 문제. 인민, 제4호.
- 진은희(2000). "컴퓨터 게임 개발자"의 몰입 체험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정유성(1998). 청소년문화 담론 형성을 위한 시론. 한국청소년연구, 제28호.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조선총독부 편(1920). 조선어사전. 경성.
- 조성진(1947). 애국 청년에게 호소함. 청년 조선, 제11호.
- 조용환(1993). 청소년연구의 문화인류학적 접근. 한국청소년연구, 4(3). pp. 5-17.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조한혜정(1999). 청소년의 인권과 시민권을 다시 생각함. 소태산사상연구원 편. 청소년문화읽기와 말걸기. 전남: 영산원 불교 대학교 출판국.
- 조한혜정(1999). 청소년 '문제'에서 청소년 '존재'에 대한 질문으로. 연세대 청년문화센터. 왜 지금 우리는 '청소년'을 이야기하는가? 국제학술대회자료집(1999·10·30). pp. 25-42. 프레스엔타 국제회의장.
- 조한혜정(2000). 학교를 찾는 아이 아이를 찾는 학교. 서울: 또 하나의 문화
- 주은우(1994). 90년대 한국의 신세대 소비문화, 경제와 사회, 1994년 봄호. pp. 70-91. 서울: 한울
- 최이숙(2002). 1970년대 이후 신문에 나타난 청소년 개념의 변화.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함석헌(1959). 청소년 학도를 무엇으로 고무할까? 새교육, 6월호.
- 황응연(1956). 왜 부랑하게 되는가? : 소년범의 부랑화의 원인과 그 방지. 새교육, 5월호.
- 시바노 쇼오잔 편(조 용환·황순희 역)(1992). 교육사회학 : 해석적 접근. 서울: 형설출판사.
- Hebdige, Dick.(1984). *Subculture: meaning of style*. London: Methuen. 이동연 역(1998). 하위문화: 스타일의 의미. 서울: 현실문화연구.
- Hebdige, Dick.(1988). *Hiding in the light: on images and things*. London: New York: Routledge.
- Lazarus, Sylvain.(1996). *Anthropologie du Nom*. Editions Du Seuil. 이종영 역(2002). 이름의 인류학. 서울: 새물결.

대한매일신보 1907·8·24일자 1면 기사: 청년동포에게 경고함이라.

동아일보 1920·7·9일자

<http://www.kinds.or.kr/>

* 논문접수 2005년 11월 14일 / 1차 심사 2005년 11월 25일 / 2차 심사 2005년 12월 7일

* 이혜숙: 서울대학교 가정관리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교육학과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국방송대학교 원격교육연구소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며, 주요저서로는 "학부모운동 참여자들의 활동과 갈등에 대한 교육학적 해석"(박사논문), "교육시민운동 참여활동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고교 평준화 정책의 적합성 연구(III) 등이 있다.

* e-mail: lhsook1@snu.ac.kr

Abstract

An Exploring Study on the Use of 'Youth' and the Way of Definition in the Discourse on Youth

Lee, Hyesook*

This study aims to explore when a term of 'youth' was used and how the discourse on youth have changed in our society. To achieve these aims, I searched for documents on the subject.

People used together the term of cheongchunsoyon(child), soyon(boy), cheongnyon (adolescence) in 1910-40's. It is Chosuneosazeon(The Korean dictionary) in 1940 that a term of youth is given in the dictionary. From this fact, I can guess that a word of youth was used in 1930's.

This study reviews the change of the discourse on youth. It is three. First, it is the discourse that one consider the term of youth equal to the term of the student. Second, it is the perspective regarding youth as the consumer. Third, it is a point of view youth is the producer-consumer. In summary, this study reveals that the notion on youth have a close relevance to sociocultural context.

Key words: youth, adolescence, child, discourse on youth, notion, category. way of definition.

*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Institute Distance Education